尖端産業

情 報 産 業

金 泰 漢
〈㈜와이즈 디베이스 대표이사 · 經博〉

최근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국제화 또는 개방화라는 단어들을 거의 매일 접하게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불어닥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국민 전체의 관심이 홍선대원군 이래 국제문제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무관심했던 모든 이들을 깨워놓은 것이다. 그러나 새해들어 갑자기 국제전문가인양 목소리를 높이는 많은 저명인사, 교수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면서 개방화 · 국제화의 필수조건인 정보산업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번은 짚어볼 필요를 느낀다. 국제화 · 개방화는, 그저 그 단어들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의 첫 단계가 바로 정보산업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화 · 개방화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들어감을 의미하며 경쟁이 심화될수록 정보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급증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1. 정보산업의 개요

정보산업이 최근들어 새삼스러워진 것은 아니다. 인류가 끼리끼리 모여살고 경쟁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이후 정보의 필요성 또는 용도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다. 다만 그 시대의 상황과 경쟁의 정도에 따라 정보산업은 그 역할과 모습을 변화하며 발전해 온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20세기 이전에는 경제의 폭이 좁았고, 더구나 경제가 권력에 종속되어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정보산업은 권력 소유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적 정보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독점적 정보란, 예를 들면 국가간의 분쟁이 심할 때 군사 및 정치제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국 또는 정보수요자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치명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세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아감으로써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정보의 수요가 급증하여 정보산업의 급속한 팽창을 야기했다. 선진국들간의 국제시장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정보에 대한 필요성 및 전문성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절대적인 기술의 부족으로 경쟁구조에 있기 보다는 기술종속의 구조속에서 그들의 보호안에서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생존을 유지하는 형국이었으므로 정보에 대한 욕구는 작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보산업이란 무엇인가?

냉전체제의 종식을 고한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이후 세계의 관심은 제3차세계대전 또는 국가간의 전쟁도발이라는 원시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국의 경제적 풍요 및 자국민의 복지향상에 쏠리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냉전이 가지고 있던 잠재적 위험을 담보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욕구의 희생을 더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선진국들은 더이상 작은 나라를 위해 양보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나

아가 그들의 풍요를 위해 작은 나라의 희생을 요구하고자 한다. 또 그동안 저개발국가들도 상당한 산업발전을 이룩하여 자국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증대시켜 놓았다. 물론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국가들도 자본주의식 경쟁에 뛰어든 것도 국제경쟁을 심화시킨 한 요인이 된다.

요사이 우리는 흔히 경제전쟁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면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정보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정보산업분야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상황과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2. 정보산업의 기대효과

이제 무한경쟁시대로의 진입을 선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경쟁의 치열함을 느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보다 나은 삶의 추구는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를 동반하게 되고 더욱 열심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즉 경쟁은 자본주의의 원동력인 것이다.

정보산업은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 역할 또한 증대하게 된다. 전쟁 또는 냉전시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국가운영 차원의 정보산업이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전쟁의 시대에서는 기업을 실수요자로 하는 경제정보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세계는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버렸다.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계기로 그전에는 국제무역에 관여했던 기업들만이 관심을 보였던 국제경제환경은, 이제 자국내 산업의 보호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은 물론 각국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란, 궁극적인 존재목적이 정보수요자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이다. 교통 및 통신기술이 낙후됐었던 과거에는 정보의 수집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의 제공이 정보산업의 주상품이었다. 그러나 정보수집과 관련한 기술들이 급속히 발달한 지금, 쏟아지는 정보홍수의 시대에서 정보의 수집은 더이상 이슈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검색해서 무엇을 선택·발췌하여 정보수요자가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다량의 정보를 수집·기록해 놓는 것은 가능해 졌다. 따라서, 한단계 더 진보된 정보산업은 정보의 수집·검색·발췌의 수준에서 수요자에게 모든 판단을 하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분석을 첨부하여 정보수요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컨설팅을 하는 것이다. 다양한 업무와 각기 다른 시장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정보산업이 분야별·지역별 전문가를 양성, 구매자의 판단에 중요한 전문가적 조언을 더할 수 있다.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기업가나 중역이 세계의 변화를 매일 또는 매주 파악하기에는 몇가지 장벽이 있다.

첫째, 각국 또는 지역의 주요신문 및 방송내용을 수집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둘째, 그 많은 신문·방송 내용을 검색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간단히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그나마 이것은 언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셋째,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수집·발췌된 내용들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활발한 정보의 수집없이는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경쟁력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 결국 정보산업도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원론에 입각한 시각으로 봐야할 것이다. 경쟁속에서 남보다 나은 상품을 경쟁자보다 싸게 만들어 내야만 경쟁력을 갖게 된다. 즉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전력을 다하고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은 구매를 하게 된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듯이 Specialization이라는 산업구조를 만들게 된다.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이 정보의 수집·검색·발췌라는 과정을 거쳐 전략을 수립한다면 이미 시간적으로 늦거나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 그것보다는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전략수립에 참고가 될 자료를 만들어 준다면 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비교우위 즉 비용을 염두에 둔다면 독점적 정보가 아닌 경우 자체생산은 매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유사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정보사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정보산업의 발전은 다수의 수요자가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1차 또는 2차 자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정보의 비용을 낮추고 정보수요자들의 시간을 절약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제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아직도 정보를 서어비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오이다. 정보는 곧 전쟁터에서 전략수립의 기초가 되는 지도(地圖)와 마찬가지이다.

이제 시장동향의 파악은 필수적인 것이다. 나아가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경쟁속에서 보다 앞서가는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 정보산업은 여타 서어비스 산업과 마찬가지로 매우 낙후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많은데서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서어비스 업종과는 맥을 달리하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방후 한국의 사회구조는 권력주도형의 길을 택해왔다. 그러한 구조속에서 동양 특히 한국 특유의 인맥사회가 어우러져 정보산업은 매우 왜곡된 모습으로 자라왔다. 즉 권력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수집, 검색·발췌, 분석 및 전략수립이라는 과정이 필요치 않고 정보소스인 권력 및 담당자에게 접근하여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정보의 창출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정보산업은 체계적인 방법을 갖추고 발전하기 보다는 인맥을 따라 사람을 찾아다니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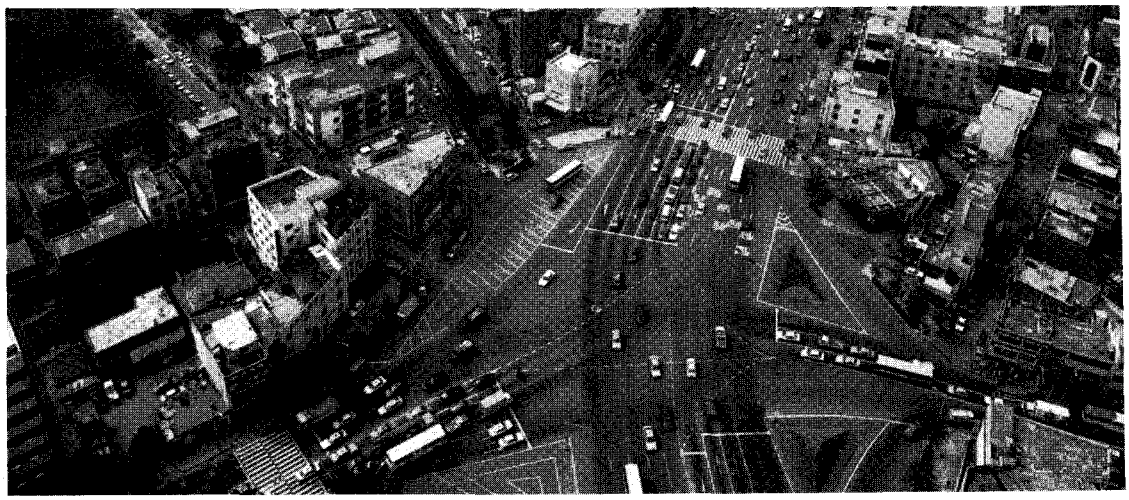
최근들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보독점의 구조에서 벗어난 정보산업은 새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둘째, 경제전반에 걸친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막강해 경쟁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창출되지 못했다. 즉 경제개발계획 등의 정부의 계획경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에 더 관심을 쓰도록 만들었다. 뒤늦게 80년대 중반에 들어서 대기업들의 경제연구소 만들기 붐도 일었지만 조직 자체가 정보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해 경제연구소들이 그룹내에서 자기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매우 단견적이다. 다시 말하면 즉시 무엇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장기적으로 분석을 요하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思考)는 산업기술쪽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서적 및 보고서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거나 외국의 기술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는 길을 택하기 보다는 외국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단순구매 함으로서 장기적인 기술종속의 위험을 무시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세계시장에서 보호장벽이 무너지고 있고 저개발국가라고 무시해 왔던 동남아시아 및 중국의 부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전쟁은 매우 냉혹한 것이다. 국가간의 거래는 더욱 냉정하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술을 팔아 이익을 남기기 보다는 우리시장에 직접 진출해 더 큰 이익을 내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을 사서 경쟁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 이제 경쟁의 상대는 전세계에 있다. 그들을 보다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경쟁에서 도태되고 만다. 정부도 이제는 무작정 보호해 줄 수 없게 되었다. 기업들 개개가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소화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정보수요가 창출된



다면 정보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대행하는 산업이야말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성행하는 신문 스크래핑 서어비스는 이런 류의 정보사업이다. 바쁜 일과에 많은 신문을 읽을 수 없는 사람 또는 기업을 위해 분야별로 신문을 대독·발췌하여 구매자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 예를들면 국내 경제신문들과 전자신문 등을 요약한 전자·컴퓨터관련기사 스크래핑 서어비스 같은 것이다. 최근들어 정보서어비스업체가 많이 생겨나는 것도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1단계의 정보서어비스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산업진입이 매우 쉬워 전반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단계 정보서어비스업은 최근들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된 데이타베이스 업종이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급속한 발달로 이제는 많은 양의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 안에 저장해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집은 더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정보중에서 구매자가 어떻게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뒤늦게나마 금년부터 데이타베이스진흥센타가 주축이 되어 장기적인 데이타베이스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많은 종류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2-3년내에 다양한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어 정보수요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정보산업은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 분석을 할 수 있어야하고, 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전문그룹의 육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정확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략가를 육성함으로써 최종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육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쉽게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시장의 규모가 매우 작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보산업이 발전·성장할 수 있는 제반환경이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정보산업을 단순 서어비스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은 커녕 제약을 가하고 있는 제반 규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 및 국민들이 정보마인드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상품이라는 원시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 최근들어 정보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이제 정보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보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정보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산업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